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18.(목) 11:00,
(지면) 2024. 1. 19.(금) 조간

배포 2024. 1. 18.(목) 06:00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민간기업도 적극 나서

- 올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총 542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 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29억 원, 민간자본 27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 원(국가와 민간이 50:50)을 투입하여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 원(국비 107억 원,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산란·서식장 25개소(11개 품종)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의 산란·서식장 6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조성해역에 대해 사후영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역 상태별로 등급화하여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광월 (044-200-5536)

참고

‘24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규사업지 현황

□ 바다숲 신규사업지

(단위: 백만원)

시·도	신규사업지	매칭대상 (지자체, 민간)	‘24년 예산 매칭 계획	
			국비(80%)	지방비(20%)
			국비(50%)	민간(50%)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해역	현대자동차	750	7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모리 해역	지자체	728	18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진리 해역	지자체	728	1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리 해역	지자체	728	1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세화리 해역	지자체	728	182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우가 해역	현대자동차	750	7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해역	지자체	728	1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해역	지자체	728	182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해역	효성	500	500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동항리 국도 해역	지자체	728	1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원리 해역	지자체	728	18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영진리 해역	지자체	728	1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촌리 해역	지자체	728	18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직리 해역	지자체	728	182
경상북도	포항시 강사2리 해역	지자체	728	182
경상북도	포항시 구평1리/모포리 해역	포스코	700	7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해역	지자체	728	182

※ 미확정된 1개소는 추가 선정 예정('24.1월중)

□ 산란·서식장 신규사업지

(단위: 백만원)

시·도	신규사업지	대상품종	‘24년 예산 매칭 계획	
			국비(50%)	지방비(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바리류	500	500
경상남도	거제시	쥐노래미	300	300
전라북도	부안군	꽃게	400	400
경상북도	포항시	조피볼락	400	400
전라남도	고흥군	참문어	500	500
전라북도	군산시	갑오징어	400	400